

여자 수구 대표팀, '역사적 첫 골' 소박한 목표 달성



Fina
WORLD
CHAMPIONSHIPS

경다솔, 4쿼터 중반 값진 첫 골 성공
러시아에 1-30 '아름다운 패배' 기록

급조된 사상 첫 한국 여자 수구 대표팀이 세계선수권대회 두 번째 경기에서도 크게 졌지만, '한 골'이라는 소박한 목표를 이뤘다.

〈관련기사 13면〉

한국 여자 수구 대표팀은 16일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러시아와의 2019 광주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수구 B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러시아에 1-30(0-7 0-9 0-8 1-6)으로 패배했다. 그래도 '한 골' 목표는 달성했다.

주인공은 경다솔(서울체고)이다. 4쿼터에 경다솔이 골대 오른쪽에서 던진 슈트 상대의 골망을 흔들었다. 한국 여자 수구 역사상 최초의 골이다.

이날 경기는 한국 여자 수구의 두 번째 공식 경기다. 한국은 개최국 자격으로 남녀 수구 출전권을 획득했고 여자 수구의 경우 사상 최초의 대표팀이 꾸려졌다. 5월 말에야 여자 수구 국가대표가 선발돼 세계선수권대회를 40여일 앞둔 6월 2일 훈련을 시작했다.

반면 러시아는 2017년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딴 강팀이다. 역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5개의 동메달을 딴 전통적인 강호다. 여자 수구 대표팀은 14일 헝가리

와의 조별연선 1차전에서 역대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수구 한 경기 최대 점수차 패배인 0-64로 대패했다.

이날 여자 수구 대표팀은 두 번째 경기에서도 대패를 면하지 못했다. 하지만 1차전처럼 기록적인 패배는 아니었다.

공·수 양면에서 앞선 헝가리와의 1차전보다 나은 움직임을 보였다. 러시아도 최악적인 한국을 상대로 다소 느슨하게 경기하는 듯 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30개에 달하는 유효슈팅을 날리며 '한 골'이라는 목표 달성 기대를 키웠다.

3쿼터까지는 수 차례 슈트 시도에도 골을 넣지 못했다. 경기 시작 57초 만에 페널티 스로



16일 오전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러시아와의 2019 광주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수구 조별연선 2차전에서 첫 골을 성공한 경다솔이 경기 후 남아프리카공화국 디온 웰리스 심판과 선물을 주고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로 선취골을 헌납한 한국은 1쿼터에 단 7골을 내었다. 유효슈팅 6개를 날렸으나 골은 없었다.

2쿼터에도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쿼터보다 많은 9골을 내렸으나 한국의 득점은 여전히 '0'이었다.

헝가리와의 1차전에서 한국 선수 중 처음으로 슈팅을 날린 송에서(서울체고)도 2쿼터 종료와 함께 슈팅을 해 봤지만, 러시아 수문장에 막혔다.

한국은 3쿼터에도 이정은(작전여고)을 비롯해 수 차례 슈팅을 시도했

다. 하지만 골은 나오지 않았다. 러시아는 7골을 보태며 격차를 벌려나갔다.

대표팀의 '한 골' 목표 달성 기회는 다음으로 미뤄지는 듯 했다.

하지만 4쿼터 3분44초 기적처럼 골이 터졌다. 경다솔이 골대 오른쪽에서 러시아의 수비를 뚫고 슈트를 던졌고, 러시아 골문 오른쪽에 꽂혔다. 관중석에서는 경기장을 뒤덮을 만큼 커다란 함성이 터져나왔다.

자신감을 얻은 대표팀은 이후에도 수 차례 슈팅을 시도했지만, 추가골은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역사의 한 페이지가 완성됐다.

슈팅을 가장 많이 시도한 선수는 '첫 골'의 주인공인 경다솔이다. 경다솔은 무려 12차례 슈트를 시도해 역사적인 골을 넣었다.

한편 대표팀은 18일 오후 7시 10분 같은 장소에서 캐나다와 조별연선 3차전을 치른다.

서은홍 기자

화순군 공무원 반바지 근무 허용...쿨 비즈 등장

여름철 체감온도 낮춰 에너지 절감 효과



화순군은 16일 여름철 업무 효율성과 에너지 절약에 위해 지난 15일부터 모든 공직자에게 여름철 복장 간소화와 반바지 착용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화순군 공무원들 사이에 반바지 착용으로 근무하는 '쿨 비즈 룩(Cool Biz look)'이 등장했다. 16일 화순군에 따르면 여름철 업

무 효율성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모든 공직자에게 여름철 복장 간소화와 반바지 착용을 허용했다.

넥타이를 매지 않거나 반바지 차림의 '쿨 비즈'는 여름철 체감온도를 낮추고 냉방비 절감에도 도움을 주는 친환경 패션이다.

화순군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직무 특성에 맞춰 쿨 비즈를 시범 운영한다.

직원들은 이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공식 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원한 복장으로 근무하게 됐다. 다만 공식행사가 있거나 주민접촉이 많은 민원부서에는 예외다.

최형열 부군수는 "모든 공직자가 자연스럽게 여름철 복장을 간소화하고 반바지를 착용할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부터 쿨 비즈를 숭선수범하자"고 강조했다.

최은=박순철 기자

전남도, 어장관측정보 어민 실시간 제공...협의체 구성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국립수산과학원과 교수, 빈산소 등 이상해황에 따른 어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간 어장관측 정보 제공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어장관측시스템이 시범 설치된 곳은 신안 어의·흑산·하의·안좌, 목포 외달, 무안 성내, 함평 주포, 7개소다.

현재 전남 연안에는 국립수산과학

국출할 예정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실시간 관측소는 지역별로 완도 8곳, 진도 4곳, 신안 3곳, 여수와 고흥 각 2곳, 장흥, 해남, 목포, 영광 각 1곳이다. 매년 변화하는 수온 등 관측정보를 빅데이터화하고 전문가 분석의 해양예보를 통해 어업인들의 안정적 양식장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관측장비 구축이 완료되는 2022년부터는 지금까지 모니터링하지 못했던 해역의 정보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광남 원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피해 저감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과 협력체계를 강화, 이상수온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전남 해역에서 고·저수온으로 발생한 양식수산물 피해 규모는 975억 원이었으며 지난해에만 597억 원에 달했다.

김정환 기자

국립수산과학원과 이상해황 따른 어업인 피해 예방 現 7개소서 2022년까지 195개소에 장비 구축 예정

이에 따라 현재 전남 시범해역에 설치된 관측 시스템의 측정정보에 대해 우선 연계작업을 시작하고 연계된 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과 '전남 바다알리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원에서 24개소의 어장관측장비를 운영하고 있고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의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이 신안 흑산도 등 7개소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2022년까지 195개소에 관측장비를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해양기후 호흡기질환, 면역강화	해수 재활운동, 혈액순환
갯벌 근골격계 이완, 피부질환	해조류 면역강화, 피부질환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해양치유로 몸과 마음 힐링하세요!

청정한 기후환경과 최고 품질의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양치유산업 최적지입니다.

완도군에서는 2030년까지 1조원을 투입하여 해양헬스케어센터, 해양병원, 치유공원 등 공공시설과 해양리조트, 바이오기업 등의 민자시설이 복합된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